

# 옛말이 된 '새 아파트는 로또'

한때 '로또'로 불리던 서울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한때 시세보다 수억 원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밤샘 청약, 인터넷 광클릭, 모델하우스 앞 줄서기 등의 진풍경이 벌어지던 것을 상상하면 대반전이 이루어진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부 의도대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청약으로 재편되는 한편 중도금대출이 금지되는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아파트일 경우 현금부자 외에는 관심을 갖기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머니S'에 따르면 정부가 각종 부동산규제를 강화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1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새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1순위청약에서 미달되고 2순위에서도 팔리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대출규제 강화로 풀이된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저소득 무주택자가 아니면 청약통장이 높아진 데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나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해도 미계약이 속

출해 인기와 상관없이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당분간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한국갤럽이 올 초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앞으로 1년간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은 26%에 불과했다.

다만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으로의 청약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가 서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재개발·재건축지역 분양이 대기 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시장의 주 수요층이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되고 까다로워진 청약 조건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신중해진 모습"이라면서 "입지 조건과 분양가 등에 따라 인기 지역의 청약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문대, 늦깎이 새내기 매년 증가

전문대에 나이 많은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일을 하다 실용 기술과 지식을 배우러 전문대에 오는 경우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 학습 수요가 늘고, 취업난 속에서 실용 기술을 배우려는 성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조선일보'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전국 136개 전문대 전체 학생 중 25세 이상 성인 비중이 2016년 9.3%(6만4,444명), 2017년 9.7%(6만5,623명), 2018년 10.4%(6만8,621명)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전체 신입생 17만5210명 중에선 6.3%(1만990명)가 25세 이상이었다. 이 중엔 40세 이상 '만학도'가 5,756명으로 가장 많았다.

25세 이상 성인을 별도로 뽑는 '정원 외 만학도·성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도 올해 크게 늘었다.

올해 해당 전형 지원자는 7,268명으로, 전년보다 21% (1,271명)나 늘었고, 실제 등록한 학생은 1,740명으로 전년보다 12%(181명) 증가했다. 이 전형 입학자는 2017학년도 1,559명, 2018년 1,611명으로 증가 추세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전문대로 돌아오는 '유턴 입학생'도

적지 않다. 올해는 1,526명이 유턴했다.

전문대협의회 측은 "성인 학습자 증가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평생 학습'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기술 급변으로 직장인들도 재교육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5세 이상 성인이 많이 찾는 전문대 학과는 간호학과, 인경광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비교적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전공 분야가 많다.

전문대 지원자가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전국 136개 전문대의 올해 총모집 정원은 16만5,786명으로 전년보다 1,608명 줄었는데, 지원자 수는 153만6,237명으로 1년 만에 10만8,600명이나 급증했다. 경쟁률은 지난해 8.5대1에서 올해 9.3대1로 높아졌다.

전문대의 인기가 높아지는 건 취업률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대와 4년제 일반대 취업률은 2013년 67.9%, 64.8%로 3.1%포인트 차이났다.

하지만 갈수록 전문대는 취업률이 오르고 일반대는 떨어졌다. 결국 2017년엔 전문대 69.8%, 일반대 62.6%로 차이가 7.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리 바디샵

##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